

사고의 전환

Conversion of Paradigm

洪琦澤/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by Hong Ki-Taik

역사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양적 확대와 외재적 구속력에 끼워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환경에 맞는 우리 모두의 사고의 전환, 즉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이다. 아키텍터로서 역할의 변화와 그 개념의 확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서는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것이며, 건축 문화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면 사고의 전환도 혁명적이어야 한다.

세상에는 눈에 잘 보이는 것과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눈에 잘 띄이는 것은 보기 좋고 인기가 있으며 주위의 사랑을 받는다.

반대로 눈에 잘 띄이지 않는 것은 보기 흉해서 남들이 알아 주지 않고 버림을 받기 쉽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남과 대중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엔 보이지 않는 힘, 알아주지 않는 힘이 꼭도 그리울 때가 있다. 보이는 여러개의 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힘이 전체의 질서를 지탱해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릇된 Model Personality

우리에게 주어진 건축문화의 형성을 과정이나 결과로 어렵게 따지기 보다는 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총 도서신고 중 연면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거부분이다.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주거 부분까지 합쳐서 거의 70%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건수의 80%정도이다. 이 정도면 현재 건축문화의 모습이 어떻고 이 모습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하며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의 숙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수의 요구에 의한 다수의 건축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거 건축물이 우리의 건축문화의 Personality로 굳어져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주거 집단을 제외한 소위 엘리트적 건물군만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건축문화를 보여 주는 것일까?

Archi-Director로서의 역할

이러한 주거문화 현실은 사회적 사실을 외재성(外在性)특히 구속성의 표식에 의하여 파악하고 이것을 사회적 사실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정서 속에 있다.

첫째로, 골목길 개체 보존으로서 그 장소가 갖는 맥락에 거의 무관심한 경우.

둘째로, 새로운 생존 방법을 구하고 변신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무작위적인 자기의 길을 가는 경우.

셋째로, 지구 정비적 관점에서 장기적이지 못하고 계속 변질되는 경우.

넷째로, 유전자적으로 기능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환경구성의 동기가 되는 경우이다.

건축문화를 이끌어 가야할 아키텍터(Archi - Director)는 이러한 문제를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닌, 문제 중심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일련의 작업들은 아키텍터의 창조적 만족감을 위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워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목적에 알맞는 시각적 해결을 찾아내야 한다.

문제의 답은 이 지구상의 각 지역에서 오랜 역사가 경과하는 동안에 서로 다른 문화가 형성된 내용 즉 문화의 변이성(變異性)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머리가 좋아서 수저를 발명했고 서구인은 전투적이고 저돌적이라서 나이프와 포크를 만든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음식은 점착성(粘着性)이 있는 주식에다 김치나 야채류를 부식으로 먹기에 수저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수저를 사용하거나 포크를 사용할 때 어느쪽이 고문화(高文化)이고 저문화(低文化)냐 하는 차등 관계는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동물의 경우에는 실험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보아서 그 나타난 영향을 보아 그것을 종합 분석해서 각각의 범칙성을 찾아낼 수 있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설정 방법은 불가능하다. 그대신 민족 정서를 함양했던 민중의 생활사 중심으로 공간을 인식함으로써 미래 생활사 중심에 알맞는 새로운 우리 주거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히 우리 주거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질때 해결되리라 본다.

작업에 대한 또다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 계획의 특성은

미래-불확실하다.

미래-변화-진보를 그 전제로 한다.

결국은 현상학적 대상으로 ON과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다라는 For, 그 행위로서의 Why.

정리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이다. 또 계획의 범위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며 그 행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된다.

-환경으로부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태 즉, 「문제의 파악」

-물리적 형태에 의한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혹은 「변화의 예측」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여 바람직한 미래의(예측된)상태에 이르게 해주는 「물리적 상태의 창조」

-위의 방법에 필요한 기술을 동원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철저하게 거친 결과물이라도 그 작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지어지고 연출되어지느냐가 작품의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거주후 평가(P.O.E)이후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거주후 평가(P.O.E)란 건축에서 새로운

용어라 할지라도 그 개념은 시대적으로 이미 여러 방면에서 대단한 영향을 끼쳐왔다. 이와같은 거주후 평가의 목적은 인간의 공간 사용 결과를 분석하여 사용자와 건축가들에게 기존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과 환경적 부조화를 인지하여 새로운 설계에 그와같은 오판을 방지함과 건축물을 생태계의 관점에서 인간을 둘러싸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문제삼아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접근 방법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거주후 평가는 인간에게 적합한 물리적 생활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수반하여 문제의 본질을 찾아 그 해결을 추구하고 미래의 설계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인간의 생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주거 문화의 올바른 Model Personality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

제 키의 몇십배나 되는 높이를 뛰어오를 수 있다는 벼룩을 1센티미터의 높이만 뛰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방법은 유리판을 두장 위, 아래 1센티미터 되게 장치하고 사방을 막아 그 속에 벼룩이 제멋대로 펄쩍 뛰었다가는 여지없이 뒤통수를 얻어맞게 되고 뿔뿔해 머리를 찡자 꼬를 내어 점점 뛰는 힘을 덜주어 적응하게 되면, 유리판을 치워도 1센티미터씩만 뛰면서 결국은 제 키의 수십배라는 높이뛰기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요즘 들어 나는 가끔 생각해 본다.

벼룩처럼 유리판 사이에 끼어 1센티미터 뛰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넓게는 우리 사회가 좁게는 아키디렉터나 사용자가 유리판이 치워진 다음에도 그 습관 때문에 「나는 1센티미터를 뛰는 벼룩이요」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가 하고 뿔뿔해 부딪치던 마알간 유리 천정이 두려워 무릎을 조금 오무렸다가 조금 퍼면서 뛰는 시늉만 하고 뛰었다고 생각해대며 사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역사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양적 확대와 외재적 구속력에 끼워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환경에 맞는 우리 모두의 사고의 전환, 즉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이다. 아키디렉터로서 역할의 변화와 그 개념의 확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서는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것이며, 건축 문화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면 사고의 전환도 혁명적이어야 한다.